

기다림의 미덕 가르쳐준 부조리극

한국교사연극협회 회장

계성환씨가 뽑은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를 기다리는 일은 현실의 부조리함에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희망을 추구하는 길이기도 하죠. 낯익은 일상의 패턴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프로 연극인이 아니면서 16년 넘게 연극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 있다. 이쯤되면 진정한 연극 마니아라 이름붙일 만한데, 그 주인공은 한국교사연극협회 회장 계성환씨(42, 경북여고 교사)다. 그가 소개한 책은 부조리극을 이끈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오증자, 민음사).

“정통적인 극 구성의 흐름에 반하는 실험적인 작품입니다. 작품의 구도는 원의 형태를 띠니다. 극의 시작과 끝이 맞물려 결국 시작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죠.”

그에게 이 책은 대학시절, 연극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했던 ‘연극입문서’였다. 그에게 베케트는 감히 뛰어넘을 수 없는 ‘신화’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매년 한국교사연극협회가 공연하는 극단교극이 31회를 맞이했어도, 정작 이 작품은 무대에 올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 작품의 매력은 끊임없는 기다림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는 데 있죠. 특히 현대사회에서 ‘빨리빨리’를 외쳐대는 사람들에게겐 기다림의 미덕을 일깨워줍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고도’의 상징적 의미 때문에 종종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53년 이 작품이 초연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도’(godot)를 ‘신’(god)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베케트는 고도가 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걸 내가 알면 왜 고도를 썼겠소?”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이 역설적인 화법 속엔 작품이 작가의 손을 떠났을 때, 그 해석은 바로 독자의 몫이 된다는 베케트의 철학이 녹아 있다. 결국 고도에 대한 해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은 사람들은 대부분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의 대화에 주목한다. 그러나 그는 극중에서 주종관계로 설정된 포조와 럭키의 캐릭터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1막에서 포조는 럭키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가하고, 럭키는 저항 없이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2막에서는 소리 없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포조는 장님이 되고, 럭키는 병어리가 되거든요. 이는 한 쪽이 너무 일방적일 때, 그 상대는 대화를 단절해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건 바로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는 배우가 무대 뒤에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것처럼, 고도를 기다리는 일은 현실의 부조리에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희망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 박옥순기자



백제와 신라의 두 장군은
군사들을 데리고 말머리를 돌렸어요.



아리수의 오리

한정야 글 · 박익식 그림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유쾌한 이야기



마루벌의 좋은 창작 그림책

도서출판 마루벌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꼭 보여 주고 싶은 좋은 창작그림책을
꾸준히 기획·출판하고 있습니다.

이코페미니즘의 새 시대 어린이들을 위한
참신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의 의욕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마루벌

도서출판 마루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6 / 전화 701-2390 / 팩스 701-2395
http://www.marubol.co.kr